

P.I.R.A.M 국어 생각의 절정
LEET언어이해 선별집 |주차 해설지

1주차 <기출 유사 지문 : 헤겔의 변증법>

2023LEET [22~24] 인문 '헤겔의 낭만' ☆☆☆

1문단

①헤겔에게서 '낭만'은 일차적으로는 예술의 형식과 역사 및 장르를 유형학적으로 단계화하는 미학적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 면에서는 그의 정신철학 전체의 핵심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②이 개념은 그 명칭이 주는 익숙함으로 인해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③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개념을 '낭만적인 것'이라는 범주로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고, 이것이 특히 예술적 내지 사상적 노선으로 공인된 '낭만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밝혀야 한다. ④주목할 것은, '낭만적인 것'이 일차적으로 그 단어적 인접성에서 보이듯이 낭만주의를 하나의 하위범주로 포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낭만주의와 대립 관계를 보이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① #정의 제시 #화제 제시

헤겔에게서 '낭만'은 일차적으로는 미학적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그의 정신철학 전체의 핵심을 적확하게 드러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지문은 헤겔이 말하는 '낭만'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헤겔의 정신철학'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겠네요. 이렇게 화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로 계속 읽어봅시다.

②~③ #재진술 #정의 제시 #화제 제시

'낭만'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은 단어이기에, 종종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따라서 헤겔의 '낭만'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낭만적인 것'이라는 범주로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고, '낭만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는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인 것이죠. 그저 '낭만'이라는 멋진 단어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어떤 점에서 두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④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낭만적인 것'은 일차적으로 그 단어적 인접성에서 보이듯이 '낭만주의'를 하나의 하위범주로 포괄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낭만/주의'란 결국 '낭만적인 이론이나 학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에, '낭만주의'를 '낭만적인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낭만적인 것'은 '낭만주의'와 대립 관계를 보이기까지 한다고 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의 단어적 인접성을 생각하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올 정보들이 이 '대립 관계'를 설명할 것임을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화제의 흐름을 생각해주면 뒤에 나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 개념을 '낭만적인 것'이라는 범주로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고, 이것이 특히 예술적 내지 사상적 노선으로 공인된 '낭만주의'와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밝혀야 한다.

지문의 화제 및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이 지문에서 말하는 '낭만'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정확한 차이점 등을 이해할 준비를 하고 읽어 보도록 합시다.

2문단

①이성주의의 가장 강한 형태의 판본을 구축하려는 헤겔의 관점에서 볼 때 무한한 상상력과 감수성이 핵심인 낭만주의는 응당 극복되어야 할 전형적인 지적 미성숙의 상태이다. ②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인간 지성이 정점에 이른 단계에 대해서도, 즉 엄밀한 개념에 의거하여 최고도의 사유를 수행하는 사변적 이성 및 그러한 이성의 활동장인 철학까지도 종종 '낭만적'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사변적 이성과 철학을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낭만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③'낭만적인 것'의 정점은 낭만주의의 대척인 이성적 사변인 반면, 낭만주의는 그 명칭이 무색하게 오히려 '낭만적인 것'의 저급한 미완 단계로 평가되는 것이다.

① #주장 제시

헤겔은 이성주의의 가장 강한 형태의 판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는 헤겔을 정의한 것과 같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이성을 강조하는 헤겔의 입장에서 볼 때, 무한한 상상력·감수성이 핵심인 '낭만주의'는 응당 극복되어야 할 전형적인 지적 미성숙의 상태예요. 상상력·감수성은 이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2022학년도 수능 '헤겔의 변증법' 관련 지문에서도 언급된 내용이기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낭만주의'와 같은 개념의 정의보다도, '헤겔'의 주장이라는 화제에 맞춰서 글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해요.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주장 제시 #재진술

그런데 헤겔은 인간 지성이 정점에 이른 단계, 즉 엄밀한 개념에 의거하여 최고도의 사유를 수행하는 '사변적 이성'과 그 이성의 활동장인 '철학'까지도 종종 '낭만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는 이성주의의 가장 강한 형태의 판본을 구축하려고 한 헤겔의 입장을 생각하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심지어 사변적 이성과 철학이라는, '낭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낭만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④ #재진술 #화제의 흐름

결국 헤겔이 생각하는 '낭만적인 것'의 정점은 사변적 이성과 철학인데, 이는 '낭만주의'의 대척입니다. 앞 문단에서 이야기한 '낭만적인 것'이 궁극적으로는 '낭만주의'와 대립 관계를 보인다는 내용의 재진술인 것이네요. 그러면서도 '낭만주의'는 단어적 인접성에 따라 '낭만적인 것'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기에, '낭만적인 것'의 저급한 미완 단계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헤겔의 주장을 이해하면서, 아직 핵심적인 물음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헤겔은 왜 '낭만적인 것'의 정점을 사변적 이성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즉, '낭만적인 것'은 왜 '낭만주의'와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일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낭만적인 것'의 정점은 낭만주의의 대척인 이성적 사변인 반면, 낭만주의는 그 명칭이 무색하게 오히려 '낭만적인 것'의 저급한 미완 단계로 평가되는 것이다.

'헤겔'의 주장이 재진술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가 대척점에 있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가져주셔야 합니다.

3문단 (1)

①이러한 착종된 용어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몇몇 지점에서 '낭만적인 것'을 '기독교적인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에서와 유사하게, '기독교적인 것'은 비록 언어적으로 종교적 색채를 풍기기는 하지만, 제도화된 신앙 및 교리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넘어서는 정신철학적 범주이다. ③그에 따르면 정신의 가장 저급한 단계는 객체에 대한 주체의 의존성이 가장 지배적인 감각적 지각의 단계이며, 가장 고급한 단계는 그러한 대상 의존성을 완전히 극복한 정신적 주체의 순수하고 내면적인 재귀적 작동인 '반성', 즉 이성적 사유이다. ④이는 절대자, 곧 '신'이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세계의 근본적 존재 구조 내지 원리로서의 '이성'이라고 보는 그의 절대적 관념론에 의거한다. ⑤절대자 그 자체가 완전한 이성적 구조, 즉 개념의 엄밀하고도 완전한 자기 운동 체계이므로, 그것에 호응하는 인간 지성의 형식 역시 개념적 사유 능력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①~② #주장 제시 #정의 제시 #재진술

헤겔은 '낭만'이라는 단어를 이성적 사변과 대립되는 것으로도, 그 자체인 것으로도 보는 착종된(뒤섞인) 용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겔이 '낭만적인 것'을 '기독교적인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뜬금없이 종교적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결국 '사변적 이성'과 연관되는 '낭만적인 것'과 같은 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종교적 색채를 풍긴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단어적 인접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를 넘어서는 정신철학적 범주라고 합니다. 이는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와 유사하기에,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헤겔의 착종된 용어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③ #주장 제시 #재진술

헤겔이 생각하는 정신의 가장 저급한 단계는 객체에 대한 주체의 의존성이 가장 지배적인 '감각적 지각'의 단계입니다. 감각적 지각은 철저하게 객체의 존재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정신'이라는 주체의 가장 저급한 단계인 것이죠. 한편 가장 고급한 단계는 '이성적 사유'인데, 이는 객체라는 대상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주체가 순수하고 내면적으로, 그리고 재귀적으로 작동시키는 '반성'의 단계예요. 여기서 '순수하고 내면적', '재귀적'이라는 말이 모두 '대상 의존성 극복'과 같은 말임을 이해하면, 헤겔은 결국 '주체의 내면성'이 더 잘 작동할 때 정신이 고급화된다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 역시 2022학년도 수능 '헤겔의 변증법' 관련 지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유사하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⑤ #주장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러한 헤겔의 생각은 절대자가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이성'이라고 보는 그의 '절대적 관념론'에 의거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절대적/관념론'인데, 이는 이성이라는 '관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헤겔의 주장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이에 따르면, 절대자 그 자체가 세계의 근본적 존재 구조 내지 원리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이성적 구조, 즉 개념의 엄밀하고도 완전한 자기 운동 체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에 호응하는 인간 지성의 형식 역시 주체의 대상 의존성을 극복한 개념적 사유 능력이 '이성'이어야 해요.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핵심은 헤겔이 결국 사변적 이성 및 철학을 가장 높은 단계로 본다는 것이예요. 절대자까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격체 형태를 하고 있는 '신'이 아니라 '이성'이라고 볼 정도로 말입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절대자 그 자체가 완전한 이성적 구조, 즉 개념의 엄밀하고도 완전한 자기 운동 체계이므로, 그것에 호응하는 인간 지성의 형식 역시 개념적 사유 능력이 이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말들의 나열이지만, 결국 '헤겔'의 주장을 재진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한다는 대전제를 잊지 마세요!

3문단 (2)

⑥여기서 '기독교적인 것'이란, 어떤 물리적 대상을 매개로 절대자와 만나려는 원시적 지성성을 극복하여 순수한 내면적 정신성을 성취하는 지성의 단계를 통칭한다. ⑦따라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기독교적인 것'은 순수한 개념적 반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는 철학에서 달성된다. ⑧반면 기독교는 자연적 대상의 숭배 또는 매개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개념적 반성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기독교적인 것'의 불완전한 단계로 평가된다. ⑨이상을 근거로 할 때 '기독교적인 것'은 '내면적 지성성'으로 바꾸어 부를 때 그 본질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⑩내면적 지성성에서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완전한 단계는 개념적 사유를 통한 철학인 한에서,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와 단 순 등치될 수 없는 것이다.

⑥~⑦ #정의 제시 #재진술

이러한 맥락에서, 헤겔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것'은 어떤 물리적 대상을 매개로 절대자와 만나려는 원시적 지성성, 즉 물리적 대상이라는 객체에게 의존하는 '저급한 형태'의 정신 작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 극복하여 순수한 내면적 정신성, 즉 대상 의존성을 극복한 '고급한 형태'의 정신 작동이예요. 대상 의존성을 극복한 채 '이성'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곧 '기독교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것'은 이성의 활동장인 '철학'에서 완전하게 달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⑧ #정의 제시 #재진술

반면 '기독교'는 자연적 대상의 숭배 또는 매개, 즉 객체에게 의존하는 가장 저급한 단계는 넘어섰다는 점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의 범주에 속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념적 반성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지성의 완전한 순수 내면성, 즉 대상 의존성을 완전히 극복한 '고급한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기독교적인 것'의 불완전한 단계로 평가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같은 말의 반복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⑨~⑩ #주장 제시 #재진술

이에 따르면, 헤겔이 말한 '기독교적인 것'은 '내면적 지성성'으로 바꾸어 부를 때 그 본질적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내면적 지성성'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완전한 단계는 결국 철학이예요. 따라서 철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것'의 저급한 미완 단계에 불과한 것이요. 결국 '기독교'라는, 다소 뽕뚱맞아 보이던 정보 역시 '사변적 이성', '철학'을 중시하는 헤겔의 입장을 재진술할 뿐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⑩내면적 지성성에서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 완전한 단계는 개념적 사유를 통한 철학인 한에서,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와 단순 등치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기독교적인 것'과 '기독교'의 관계는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어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4문단

①'기독교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할 때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가 밝혀진다. ②감성과 상상력의 무제한적 발산, 즉 '가슴속의 모든 것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지향하는 낭만주의가 주어진 경험 세계를 넘어서는 지적 주체의 내면적 작동을 중심 원리로 하는 것은 분명하기에 낭만주의는 의심할 바 없이 '낭만적인 것'의 하나이다. ③그러나 낭만주의가 달성하는 정신의 내면성은 개념적 반성성에 의거한 철학적 사유의 내면성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열등한 것이며, 이에 낭만주의는 '낭만적인 것'의 완전한 전형이 될 수 없다. ④진정으로 '낭만적인 것'은 철학적 사유에서 비로소 성취된다.

①~② #화제의 흐름 #재진술

결국 우리가 '기독교적인 것'을 이해하려는 이유는 헤겔이 말하는 '낭만적인 것'과 '낭만주의'의 관계(착종된 용어법)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낭만주의'는 감성과 상상력의 발산이라는, 지적 주체의 내면적 작동을 중심 원리로 하는 것이예요. 따라서 이는 '낭만적인 것'의 하위범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③~④ #주장 제시 #재진술

그러나 '낭만주의'가 달성하는 정신의 내면성은 '기독교적인 것'에서도 이야기한 철학적 사유의 내면성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열등한 것'이예요. 이러한 열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반성성에 의거한 철학적 사유의 내면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낭만주의'는 '낭만적인 것'의 완전한 전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내면', '반성', '철학', '사유'와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재진술되면서 '헤겔의 한마디'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정리하면, '낭만주의'는 주체의 내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낭만적인 것'의 하위범주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주체의 내면성이 가리키는 방향이 철학적 사유가 아닌 감성·상상력 같은 철학과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기에, '낭만적인 것'의 열등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것' 사이의 관계처럼 말이에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2. 헤겔의 관점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 지문의 핵심을 묻고 있습니다. 결국 '낭만적인 것(=기독교적인 것)'과 '낭만주의(=기독교)'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었어요. 후자는 '내면적 사유'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이성적 사유'라는 고급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열등한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동의어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니 둘이 같은 말인 건 아니지.
해설	이 지문에서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은 모두 '내면적 지성성'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각각 '예술적 내지 사상적 노선으로 공인된 것'과 '제도화된 신앙 및 교리 체계'로 정의되어 있어요. 이들은 동의어라고 할 수 없죠. '낭만적인 것-낭만주의'의 관계와 '기독교적인 것-기독교'의 관계가 대응되는 것이지, '낭만주의'와 '기독교'라는 단어 자체가 대응되는 것은 아니예요. 화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② '기독교'는 정신적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낭만적인 것'에 속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8번 문장,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독교도 내면적 사유를 이용하긴 하니까 맞지.
해설	'기독교'는 자연적 대상의 숭배 또는 매개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체의 내면적 작동이라는 정신적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겔의 '기독교적인 것'은 '낭만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내면적 정신성을 성취하는 지성의 단계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가 정신적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것'에 속한다는 것은 '낭만적인 것'에 속한다는 말로도 바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지문에서 '낭만주의-낭만적인 것'의 관계가 '기독교-기독교적인 것'의 관계에 대응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어요.

③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모두 완전한 형태의 내면적 지성성을 획득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8번 문장,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열등한 거지.
해설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한 형태의 내면적 지성성을 일컫는 '낭만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의 저급한 미완 단계이자 불완전한 것이예요.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디.

④ 최고도의 '기독교적인 것'은 예술사조로서의 '낭만주의'를 통해 성취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6번 문장, 4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낭만주의는 열등한 거라니까.
해설	최고도의 '기독교적인 것'은 순수한 개념적 반성을 통해 수행되는 철학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예술사조로서의 '낭만주의'는 '기독교적인 것'과 동의어인 '낭만적인 것'의 저급한 미완 단계일 뿐이에요. 따라서 '낭만주의'를 통해서도 최고도의 '기독교적인 것'을 성취할 수 없어요.

⑤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은 모든 단계에서 순수한 개념적 반성을 통해 수행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개념적 반성은 마지막 단계인 철학에서만!
해설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은 '내면적 지성성'의 단계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 중에서 가장 고급한 단계가 바로 순수한 개념적 반성을 통해 수행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와 '기독교'는 비록 순수한 개념적 반성을 통해 수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체의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의 불완전한 하위 단계라고 할 수 있었어요. 즉, '낭만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은 모든 단계에서 순수한 개념적 반성을 통해 수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23.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그의 정신철학 전체의 핵심

-역시 화제인 '헤겔의 주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이용하면 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사변적 이성을 하는 단계가 인간 지성의 정점에 이른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물어볼 것 같죠? ㉠은 '낭만'이라는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① 정신의 재귀적 작동은 신앙과 예술의 영역에서 최고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1문단 3번 문장, 2문단 2번 문장,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신앙과 예술은 최고도와 무관하지.
해설	'신앙'과 '예술'의 영역은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헤겔의 입장에서 신앙과 예술을 통해 정신의 재귀적 작동이 최고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를 위해서는 '사변적 이성'이 활동하는 '철학'의 영역이 필요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② 참된 인식의 수행 방식은 인식의 궁극적 대상의 존재 구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헤겔 주장의 핵심이네.
해설	헤겔은 '절대적 관념론'에 의거하여, 절대자 그 자체가 완전한 이성적 구조, 즉 개념의 엄밀하고도 완전한 자기 운동 체계이므로 이에 호응하는 인간 지성의 형식 역시 개념적 사유 능력인 '이성'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인식의 궁극적 대상인 절대자의 존재 구조가 '이성'적이기에 참된 인식의 수행 방식도 '이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변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 사유를 강조하는 것이 헤겔의 정신철학 전체의 핵심이었죠? 지문을 읽으면서 이를 완벽하게 납득하고, 가볍게 답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③ 개념의 연쇄를 통한 논리적 추론보다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체험을 인식의 출처로 평가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 반대로 말하고 있네.
해설	구체적 현실에 대한 체험은 이 지문에서 언급한 '감각적 지각'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객체에 대한 주체의 의존성이 가장 지배적인 정신의 저급한 단계이므로, 헤겔이 이를 인식의 출처로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요. 헤겔의 입장에서 가장 고급한 정신의 단계인 '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의 연쇄를 통한 논리적 추론을 인식의 출처라고 할 것입니다.

④ 절대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인식은 인격화된 절대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여길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절대자는 인격화된 게 아니라 이성이었지.
해설	헤겔은 '절대자'마저도 인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이성'으로 보면서, '사변적 이성' 및 '내면적 사유'를 강조하는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헤겔'이 '인격화된 절대자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최고의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죠.

⑤ 구체적 경험보다는 정신 내면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작동에서 최고의 지적 탁월성이 달성된다고 여길 것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상력은 부족하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해설	구체적 경험은 객체에 대한 주체의 의존성이 가장 지배적인 정신의 저급한 단계인 감각적 지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것보다는 '낭만주의'처럼 주체의 내면성을 강조하는 정신 내면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작동을 더 고급한 것으로 평가할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최고의 지적 탁월성'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헤겔의 입장에서 '최고의 지적 탁월성'은 오직 철학적 사유를 통해 달성될 뿐입니다.
----	---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헤겔은 회화를 '낭만적' 예술 장르로 분류한다. 이는 일반적 장르 구분 관행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통상 건축·조각과 함께 조형예술 영역에 편성되던 회화를 음악·시문학과 동일한 장르군으로 위치 이동시킨 것이다. 그는 특히 17세기의 네덜란드 장르화를 높이 평가한다. 장르화에는 위대한 정신성, 즉 자연의 위험을 극복하고 외세의 침공을 격퇴하고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 네덜란드인들 고유의 자기 확신과 자유 지향성이 평범한 일상의 사실적 묘사 속에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 그 자체'가 형상화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식적으로 사실주의 미술의 하나로 분류되는 네덜란드 장르화가 그에게서는 '낭만적인 것'으로 기술된다.

- 헤겔은 회화를 '낭만적' 예술 장르, 즉 '낭만적인 것'으로 분류합니다. 이는 헤겔이 회화를 '주체의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하네요. 이러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조형예술 영역에 편성되던 회화를 음악·시문학과 동일한 장르군으로 위치 이동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화는 조형예술처럼 '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시문학처럼 '주체의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헤겔은 특히 17세기의 네덜란드 장르화를 높이 평가하는데, 그 속에는 네덜란드인들 고유의 자기 확신과 자유 지향성, 즉 '내면적 사유'가 평범한 일상의 사실적 묘사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네덜란드 장르화는 '낭만적인 것'으로 기술된다고 해요. 앞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결국 '헤겔은 회화를 낭만적인 것으로 보았다.'라는 한마디만 기억하면 되겠죠? 물론 '철학적 사유'에는 미치지 못했으니 '최고도의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요.

- ① 어떤 예술 장르를 '낭만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술이 철학적 사변의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낭만적인 것'을 더욱 높이 추동시킨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철학적 사변보다 높은 게 어딴냐.
해설	헤겔에게 있어 '낭만적인 것'의 정점은 철학적 사변입니다. 따라서 네덜란드 장르화와 같은 예술 장르가 '낭만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철학적 사변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미리 생각한 것처럼, 회화는 순수한 철학적 사변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 ②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인간적인 것 그 자체'가 형상화된다는 진술은 인간의 본질을 세속의 미시적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사상적 모태로 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세속의 미시적 현실이 왜 나와.
해설	<보기>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것 그 자체'는 '네덜란드인들 고유의 자기 확신과 자유 지향성'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겉으로 보이는 '세속의 미시적 현실'이 아니라 그 속에 스며든 정신적인 내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죠. 나아가, '인간적인 것 그 자체'는 네덜란드 장르화에 대한 헤겔의 해석입니다. 헤겔이 '세속의 미시적 현실' 같은 것에 주목했을 리가 없기에, 이 선지의 내용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어요.

- ③ 양식상 사실주의로 분류되는 장르화를 '낭만적인 것'으로 부르는 것은 일상의 사실적 묘사 속에 기독교의 교리가 확고부동한 삶의 규범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기독교의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해설	헤겔이 장르화를 '낭만적인 것'으로 부르는 것은 그 속에 내면적 정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일상의 사실적 묘사 속에 '기독교'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되겠네요. 애초에 지문의 화제와도 맞지 않으니, 가볍게 지워내야 합니다.

- ④ 회화를 '낭만적' 장르로 분류하는 방식은 회화적 표현이 근본적으로 주체의 정신적 내면성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건축·조각보다는 음악·시문학과 더 동질적이라는 생각을 근거로 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보기>를 분석하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입니다. 헤겔이 회화를 '낭만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회화적 표현이 주체의 정신적 내면성에 의거한다고 보기 때문이었어요. 이는 건축·조각 같은 '감각적 지각'을 바탕으로 하는 장르보다는, 음악·시문학과 같이 '내면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장르와 더 동질적이라는 생각을 근거로 하겠죠.

- ⑤ 네덜란드 장르화를 '낭만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상상력의 무제한적 발산을 추구하는 낭만주의의 미적 전략이 이 부류의 회화 작품에 가장 모범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바탕을 둔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낭만주의의 전략은 헤겔이 그리 좋아하는 게 아냐.
해설	<p>헤겔이 네덜란드 장르화를 ‘낭만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낭만주의’의 미적 전략이 모범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적 정신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낭만주의’는 ‘낭만적인 것’의 저급한 단계일 뿐, 동치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p> <p>또한 ‘낭만주의’는 ‘상상력의 무제한적 발산’을 추구하는 것인데, 네덜란드 장르화는 상상의 내용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즉, 네덜란드 장르화가 ‘낭만주의’의 미적 전략을 모범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 진술인 것이죠.</p>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한 사람은 한마디만 한다’는 인문 지문의 대원칙이 그대로 살아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재진술시켰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아가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쓰여서,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그 부분에서 많이 고전했을 것입니다. 어휘력 역시 아주 중요한 변별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1주차 <법 제재의 지문 읽기>

2017LEET [1~3] 사회(법) '범죄의 성립 요소' ☆☆☆

1문단

①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하였다. ②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하였다. ③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④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처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헤엄쳐 왔다. ⑤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그 널판을 붙잡게 되었다. ⑥두 사람이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널판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선원 A는 둘 다 빠져 죽을까 걱정하여 선원 B를 널판에서 밀어내었다. ⑦선원 B는 결국 물에 빠져 죽었고 선원 A는 구조되었다. ⑧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⑨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도 따져 볼 만하다.

①~⑥ #사례-원리 연결

사례로 시작하는 특이한 지문입니다. 첫 문단에 제시된 사례는 지문 전체의 화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말이죠! 상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난파된 배에 타고 있던 두 선원 중 한 사람이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모습입니다.

⑨ #화제 제시

이 사례를 통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 했더니, 이러한 사건에서 선원 A와 같은 사람이 '형법상 처벌되어야 하는지'를 따져 볼 만하다고 합니다. 화제는 확실합니다. 살기 위해 다른 이의 생명을 희생시킨 선원 A는 형법상 처벌되어야 할까요? 뒷문단에서 다양한 법적 개념이 쏟아지겠지만, 우리는 이 화제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모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문단

①**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②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이 중 구성요건이란 형벌을 부과할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를 형법에 유형화하여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④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요건이다. 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

①~② #정의 제시

첫 문장에서부터 '범죄의 성립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원 A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원 A의 행위는 '(1)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위법'하며, '(3)유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중 단 하나의 요소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선원 A는 '형법상 처벌받지 않을 거예요.'

③~④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구성요건', '위법', '유책'과 같은 말이 정확히 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슨 뜻인지를 알아야 할 겁니다. 아님나 다름까 지문에선 친절하게 '구성요건'부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길게 제시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형법에 적어 놓은 '행위'를 했는지 포인트예요. 이렇게 정의가 길게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기억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살해'라는 위법한 '행위'가 '구성요건'임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살해=위법한 행위=구성요건'이라는 식으로 대응시키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는 것도 잊지 않고 잘 하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⑤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것이니,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났다면 '위법'하겠죠. 가볍게 납득해주시면 됩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라는 말에서 법 지문의 기본 포인트인 '예외'가 제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겠죠? '반드시'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아쉬워요. 중요한 건 1문단에 제시된 사례와 이쁘게 연결해주는 것이죠? 선원 A는 선원 B를 어쨌든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1) 구성요건'은 갖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요건'이 갖춰지는 사실이 일어났으니, '(2) 위법'하다는 것도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1문단의 사례와 연결지어 주셔야 합니다. '사례'와의 연결은 법 지문 독해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범죄**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이 지문의 화제인 '범죄의 성립 요소'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과 이어서,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겼어야만 하는 정보예요. '(1)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2) 위법'하며, '(3) 유책한 행위'라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기본이고, 1문단의 사례와 최대한 연결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3문단

①**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②잘 알려진 것으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③**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현재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④여기에는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⑤**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⑥생명과 같이 대체할 수 없는 큰 법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킨 일을 가지고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킨 위법한 행위라 하지 않는 것이다. ⑦**긴급피난**은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①~② #예외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예측했던 대로 ‘예외’가 제시된 모습입니다. 1문단의 사례가 이 ‘예외’에 해당할지도 모르니, 차분하게 정리해주시어야겠네요. 여기에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있다고 해요.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구성요건의 예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왔으니, 카테고리를 살짝 나눠주는 것도 좋겠죠?

③~④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먼저 ‘정당방위’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의가 길게 제시되어 있네요. ‘예외’에 해당하는 중요 정보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빠삭하게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핵심은 ‘위법한 침해’로부터 자신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그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정당방위’, 즉 ‘정당’한 ‘방어’를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리고 있죠?

이렇게 읽어주시면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무슨 말인지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상대의 ‘위법한 행위’, 즉 ‘불법’에 대응하는 행위를 ‘법이 처벌한다면, 이는 ‘불법’에 ‘법’이 양보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당방위’는 이러한 일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재진술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물흐르듯 이어져야 합니다!

⑤~⑥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다음은 ‘긴급피난’입니다. 이 개념 역시 정의가 길게 제시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와닿지는 않는데, 바로 뒤에 일종의 사례가 제시되고 있네요. ‘생명’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재산’과 같은 법익을 희생시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사례와 원리는 일대일로 대응시키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죠?

⑦ #비교/대조 #화제의 흐름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일단 이들은 ‘구성요건’을 갖추었지만 위법하지 않은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통 범주’를 인식해주시는 건 기본이고, 나아가 이들의 중요한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위법한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 여부라는 것이죠!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 행위’를 방어하는 것이고, ‘긴급피난’은 단어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하기 위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7번 문장이 없더라도 이런 내용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대조되는 정보들의 차이점을 ‘정의’를 바탕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요.

여기서 1문단의 ‘선원 A’의 사례에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하겠지만, 바로 다음 문단에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일단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거기서 더 쉽게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때가 있다.

법 지문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인 ‘예외 인식’을 이용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사실상 같이 가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은 순간이 있다고 해요. 이런 맥락 속에 제시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정보겠지요? 1문단의 사례와 계속 이어줄 준비를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만약 1문단의 사례가 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선원 A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게 되니까요!

4문단

①앞의 사례에서 선원 A와 선원 B가 동시에 널판을 잡은 행위는 저마다의 생명을 생각할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②이 상황은 선원 A의 입장에서 급박한 위난이었고, 선원 A의 이어진 행위는 위난을 피하는 데 절실한 것이었다. ③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④그러나 그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①~④ #화제의 흐름 #사례-원리 연결

앞에서 읽었던 두 가지 ‘예외’를 1문단의 사례와 이어주고 있습니다. 선원 A의 행위는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법익, 즉 ‘생명’이 위험한 ‘위난’이 었기 때문에, 이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고 해요. 즉,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을 갖추었지만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필자는 둘 중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한지 설명해주겠지요?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5문단

①우선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할 때 위난에 빠진 선원 B의 행위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선원 A에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범죄는 유책한 행위, 곧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여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⑤따라서 유책하지 않은 행위를 들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① #재진술 #화제의 흐름

먼저 ‘정당방위’부터 살펴봅시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생각하면, 선원 A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해요. ‘정당방위’라는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긴급피난’과 구별되는 ‘정당방위’의 포인트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선원 B의 행위 역시 그저 살고자 하는 불가피한 시도였을 뿐, 선원 A의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죠.

한편 선원 A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보는 이들은, 선원 B의 행위가 선원 A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하겠죠?

위와 같은 이유로 선원 A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선원 A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도 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목숨을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긴급피난’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조금 더 읽어보니,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데 이 사례가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선원 A가 보호한 법익은 본인의 ‘목숨’이고, 침해한 법익 역시 선원 B의 ‘목숨’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 ‘긴급피난’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선,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보다 훨씬 커야 하는 것입니다. 3문단의 사례에서는 ‘보호한 법익’인 ‘생명’이 ‘침해한 법익’인 ‘재산’보다 훨씬 컸기에 ‘긴급피난’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구요.

결국, 선원 A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 아니기에,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3) 유책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야겠죠?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문의 화제니까요.

②~⑤ #화제의 흐름 #재진술

우리가 미리 생각한 대로, ‘책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원 A의 행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2문단의 첫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화제와 직결되는 문장은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겨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선원 A의 행위는 ‘유책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이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이라는 말을 통해 범죄의 마지막 성립 요소, ‘(3) 유책한 행위’를 떠올릴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3) 유책한 행위’를 까먹었다면, 화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독해 태도를 갖춰주도록 합시다.

6문단

①위법성은 개인의 행위를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이어서,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②형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을 비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의 문제**이다. ③형법상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④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 말고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기대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⑤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도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하여는 윤리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법적 비난이 가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⑥‘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숭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화제의 흐름 #재진술

먼저 ‘위법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 개인’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해요. 말 그대로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만 보는 것이지, 그 행위를 한 ‘행위자’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행위’라는 말을 보자마자 ‘구성요건’이 떠올라야 합니다. 핵심 개념의 정의 그 자체니까요. 지금까지는 선원 A라는 ‘행위자 개인’이 아니라 ‘살기 위해 살해했다.’라는 ‘행위’에 주목해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졌던 것이네요!

②~⑤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하지만 ‘책임’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책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는 ‘개인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원 A’라는 개인에게 ‘법적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야 할 것입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했는데, 글쓴이는 ‘다른 행위의 가능성’을 들고 있어요. 즉, 선원 B를 살해하는 것 외에 다른 행위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방법이 없었느냐는 것이죠. 1문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선원 A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법한 행위로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러한 논의 끝에, 선원 A에게 윤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인 비난’, 즉 ‘범죄 성립’이라는 굴레를 씌울 수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겠죠? 첫 문단에서 부터 제시했던 화제를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있으니까요!

결국 선원 A의 행동은 (1) 구성 요건을 갖추었고 (2) 위법하지만, (3) 유책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문단의 사례에 법적 원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⑥‘카르네아데스의 널’을 재구성한 사례에서 선원 A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다면 숭고한 선행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윤리적인 비판은 몰라도 법적 인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문의 화제가 확실하게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선원 A의 행동은 ‘범죄’라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네요! 여기서 지문이 완벽하게 뚫렸다는 느낌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1. [사례]에 관한 윗글의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 이 지문의 화제를 이끌어가는 ‘사례’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할 수 있겠죠?

- ① 선원 A나 선원 B의 행위는 모두 위난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 의 판단 과정	둘의 행위가 모두 위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지.
해설	선원 A나 선원 B 모두 ‘배의 난파’라는 위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널판’을 잡은 것입니다. 나아가 선원 A가 선원 B를 밀어 죽임에 이르게 한 것도 결국 자신이 살기 위해서, 즉 ‘위난을 벗어나기 위해 서’라고 할 수 있겠죠? 가볍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② 선원 B가 만약 선원 A를 밀어 빠져 죽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범죄가 된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원 A가 밀었던 선원 B가 밀었던 결과는 같지.
해설	만약 선원 B가 선원 A를 밀었다면, 이 지문의 주인공은 선원 B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선원 B에게도 죄가 없다고 해야겠죠.

③ 선원 A와 선원 B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했지.
해설	선원 A의 행위의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따른 '위법성'은 갖췄지만 '유책한 행위'가 아니기에 범죄가 아닌 것이었죠? 지문의 흐름을 확실하게 체크했다면 1초만에 지울 수 있는 선지입니다. 물론 선원 B는 그냥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니,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④ 선원 B에 대한 선원 A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것이다.

명시적 근거	6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윤리량 형법이란 무슨 상관이야.
해설	선원 A의 행위가 '형법상 비난받지 않는, 즉 선원 A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은 대체 가능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관점의 비난과는 엄격히 구별되어 서술되었기 때문에, '윤리'와 '형법'을 연결지을 수 있는 없겠죠.

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는 선택을 하였다라고 그것을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이라 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6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숭고한 선행이라며.
해설	선원 A가 선원 B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숭고한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윤리적으로 드높은 덕행'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 ㉠, ㉡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이러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 ㉠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이나, ㉡ 긴급피난이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파악하는 이가 있을지 모른다.

-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정확히 체크하면서 읽었습니다. 선원 B의 행위를 '위법한 침해 행위'로 보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면서, 선원 A의 행동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공통점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①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지.
해설	㉠과 ㉡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보고, 선원 A는 이에 방어했을 뿐이라고 할 거예요.

② ㉠은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자기에게 닥친 침해를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고 하겠지.
해설	선원 A의 행위는 현재 자기에게 닥친 선원 B의 '위법한 침해 행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는 게 ㉠의 주장이었죠.

③ ㉡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긴급피난이면 위법한 침해 아니어도 되지.
해설	'긴급피난'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원 B의 행위가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급피난'의 조건에는 '위법한 침해'가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차이점'을 물어보고 있죠?

④ ㉡은 선원 A의 행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는 그의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따져야 결정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긴급피난이면 애초에 위법하지 않고, 그럼 범죄가 아니니까 책임은 따질 필요가 없겠지.
해설	㉡은 선원 A의 행위가 '구성요건'은 갖췄으나 '위법'하지는 않은, 즉 '예외' 상황인 '긴급피난'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선원 A의 행위는 애초에 '위법성'이라는 범죄 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범죄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으니, 굳이 '책임'의 문제까지 따질 필요는 없겠죠. 지문의 흐름이 '행위에 대한 검

	토→행위자 개인의 책임 여부에 대한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네요.
--	--

⑤ ㉠과 ㉡은 모두 선원 A의 행위가 현재 직면한 위난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볼 것이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3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예외 상황이었지.
해설	선원 A의 행동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 ㉡의 공통점이었습니다. 미리 생각한 내용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3. 뒷글에 따를 때, 선원 A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원 A의 행위는 '구성요건'을 갖추었고 '위법'하지만 '유책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즉 '책임'이 없기에 범죄가 되지 않았어요. '책임'에 대한 내용을 주관식으로 정리하면, '적법한 대안 행위가 없었기에 법적 비난 가능성, 즉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을 찾아봅시다.

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책임을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
해설	애초에 선원 A의 행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하고,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선원 A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② 형법상 책임이 있다는 것은 적법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선원 A는 책임이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책임 없는데?
해설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내용을 정확히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원 A는 선지와 반대의 이유로 책임이 없습니다.

③ 선원 A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구성요건 갖춘 데다가 위법하니까 책임 유무를 따지는 거지.

해설	우리가 생각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선지가 정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없는 이유'에 주목했는데, 정답 선지는 '책임 유무를 따지는 이유'에 주목하고 있네요. 어쨌든 선지 내용은 확실하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남의 생명을 침해한 선원 A의 행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방어도 아닐 뿐 아니라 보호한 법익이 침해한 법익에 비해 매우 크지도 않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조건인 '책임'까지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죠.
----	---

④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책임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명시적 근거	5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당방위 따졌잖아.
해설	먼저 유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헛소리를 하는 선지네요. 자신의 법익에 대한 상대방의 위법한 침해가 있을 때 적법한 대안이 없어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그런 상황이었죠? 이 말이 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원 A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여부를 먼저 따진 다음, 즉 그의 '행위'에 대한 검토(구성요건·위법성)를 한 다음 '책임'의 문제를 검토했었죠? 따라서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라고 하는 부분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⑤ 선원 A의 행위가 위법한지는 따져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범규범적 판단인 데 반하여 책임은 행위에 대한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시적 근거	6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위법한지 따졌잖아.
해설	애초에 선원 A의 행위가 위법한지 따져 보았기 때문에 바로 틀린 선지입니다. 나아가, 위법성은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고 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검토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은 뜬금없죠? 우리는 지금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예요.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례의 내용과 그 원리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면서,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 ④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⑤ 예외 인식 : 특히 법 지문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제의 전반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합시다.

지문 내용 총정리

LEET언어이해 지문치고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사례'와 '예외'라는 법 지문의 기본 독해 포인트에 주목했다면 말이에요. 나아가 이 과정은 개념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졌다는 것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포인트 인식, 재진술 인식, 사례와의 연결 등 모든 독해 과정은 '정의 체크'에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1주차 <기출 유사 지문 : 과거제>

2026LEET [10~12] 인문 '현량과의 도입' ☆☆☆

1문단

①1518년 6월 중종은 “내가 정사를 돌보면서부터 태평한 통치를 바라여 널리 인재를 구한 지 열 해 남짓이나 효과 없이 한탄만 할 뿐이니, 많은 현능한 이들이 추천되어 어진 교화를 도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의논하라.” 하고 명하였다. ②조선은 시험으로 재목을 선발하여 관리로 등용하는 과거제도를 고려로부터 이어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③유학적 소양을 선발 기준으로 하는 과거는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다. ④학업을 바탕으로 한 등용 방식은 학문 발전과 사회 교육에도 이바지하였다. ⑤하지만 시험만을 위한 경전 암기와 모범 답안 위주의 학습이 진정한 학문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⑥그런 공부로는 또 다른 소양이라 할 품행과 덕성을 키우지 못한다고 하였다. ⑦중종의 하교는 이러한 인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

① #사례-원리 연결 #화제 제시

'중종의 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 보니, 인재가 추천되어 자신을 돕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사례로 보고, 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인재 추천 방식'이겠지요? 조선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인재를 추천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④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은 '과거제도'라는 시험을 통해 유학적 소양을 평가하여 관리로 등용했습니다. 이는 성리학을 표방한 국가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고, 학문 발전 및 사회 교육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었다고 해요. '과거제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⑤~⑥ #재진술 #화제의 흐름

하지만 시험만을 위한 학습이 진정한 학문은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고, '과거제도'로는 품행과 덕성을 키우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의 수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끄덕이면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나아가 이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과거제의 명암' 지문에서 충분히 다룬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⑦ #화제의 흐름

'중종의 하교는 결국 '과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과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으로는 무엇이 제시되었을까요? 이를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⑦중종의 하교는 이러한 인식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과거제도'의 장단점을 납득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것이 결국 '중종의 하교와 연결되어 화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문단에서 화제를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문단

①조광조가 주도하는 사람 세력은 기존의 과거가 글재주만 시험할 뿐 관료로서의 재능이나 인품, 행실 등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으로서 과거제도에 천거제인 현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다. ②덧붙여 현행 제도는 권세가의 자녀가 합격하기에 유리하여 초야에 숨은 인재들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하였다. ③과거제도는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 방식이었고, 노비가 아니라면 백성은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한 시험이었다. ④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 응시를 위한 학업에 경제적 뒷받침은 필수적이었다. ⑤또한, 과거의 최종 합격은 벼슬할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급제한 뒤에 실질을 받아 관료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했다. ⑥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시험은 지배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능도 갖게 된 것이다.

①~② #주장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이에 조광조가 주도하는 '사람 세력'은 '과거제도'를 비판하면서, 천거제인 '현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천거'라는 단어가 '추천'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종'이 처음에 말했던 '많은 현능한 이들이 추천되도록 하라는 내용과 맞닿아 있는 제안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현행 제도는 글재주만 시험할 뿐 재능이나 인품·행실 등은 보지 못하고, 권세가의 자녀가 합격하기에 유리한 제도라는 말을 하며 이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죠.

③~⑥ #재진술

'과거제도'는 실력 위주의 인재 등용 방식이자, 노비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해 보이는 '과거제도'는 사실 경제적 기반이 갖춰진 이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합격한 이후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했던 것이죠. 6번 문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제도'는 지배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능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세력'이 '현량과'의 도입을 주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아가 1문단에서 말한 '과거제도'의 단점을 더 풍부하게 재진술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조광조가 주도하는 사람 세력은 기존의 과거가 글재주만 시험할 뿐 관료로서의 재능이나 인품, 행실 등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교화를 실현하기 위한 보완으로서 과거제도에 천거제인 현량과를 도입하기를 청하였다.

'현량과'의 정의를 화제와 맞닿아 있는 정보인 '중종의 하교'와 엮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으면서 글을 읽는 것.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3문단

①과거는 매우 힘든 시험이기도 했다. ②그 꽃이라 할 수 있는 문과는 경전의 암기와 해석뿐 아니라 작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어렵지만, 시험 과정도 굵이굵이 고깃길이다. <③우선 경전 이해 중심의 생원시와 글 짓는 능력을 보는 진사시도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한다. ④원칙적으로 생원이나 진사라야 문과에 응시할 수 있다. ⑤문과에서도 경전, 작문, 논술로 초시

3단계, 복시 3단계를 거쳐 최종 33명이 뽑힌다. ⑥이들이 다시 치르는 전시는 품계를 내리기 위해 등수를 정하는 논술 필기고사로서 임금이 주관한다. ⑦성적에 따라 정7품, 정8품, 정9품을 받고, 장원은 종6품이다. > ⑧이렇게 열리는 출세의 길 때문에, 소수의 정원만 뽑히는 험난한 시험에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려 경쟁이 치열했다. ⑨등급 때문에 다시 과거를 보기도 했다. ⑩그런데 **현량과**는 덕망과 행실로 각처에서 천거된 이들로 한 번의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것이다. ⑪계다가 급제자들에게는 일반 과거보다도 높은 품계를 주려 하였다.

①~② #카테고리 나누기 #정의 제시 #재진술

계속해서 '과거'의 단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아주 힘든 시험이기도 했어요. 그 내용도 당연히 어렵지만, 시험 과정 자체도 매우 고달팠다고 합니다. '과거제도의 시험 과정'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놓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준비를 해봅시다.

③~⑦ #과정 제시 #재진술

첫 단계는 경전 이해 중심의 '생원시', 글 짓는 능력을 보는 '진사시'입니다. 이것도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하고, 여기까지 합격을 해야 비로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생겨요. '문과' 역시 초시 3단계, 복시 3단계라는 무시무시한 과정을 거쳐 최종 33명이 선발되고, 이들이 다시 임금이 주관하는 '전시'를 치러 등수를 정하는 방식이었어요. 성적에 따라 품계가 달라졌구요.

여기서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정보는 결국 '현량과의 시행'입니다. '과거제의 시험 과정'은 화제와 크게 관련 있는 정보는 아니기에, 문제에서 비중 있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 > 같은 기호를 이용하여 표시만 해두고, 가볍게 읽으면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 위주로 읽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⑧~⑨ #재진술

결국 이러한 정보는 '과거제도의 단점'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등급 때문에 다시 과거를 보기도 했다고 해요. 더 좋은 학벌을 위해 수능을 또 응시하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⑩~⑪ #정의 제시 #재진술 #화제의 흐름

그런데 '현량과'는 각처에서 천거된 이들로 한 번의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과거제도'에 비해 훨씬 간단한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급제자들에게는 일반 과거보다도 높은 품계를 주는 등 지나친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놓은 것이네요. 그럴 듯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공정성'이라는 '과거제도'의 장점을 지나치게 회색시킨다는 생각이 들면 훌륭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⑩그런데 현량과는 덕망과 행실로 각처에서 천거된 이들로 한 번의 논술 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것이다.

결국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과거제도의 시험 과정'이 '현량과의 명분'이라는 핵심 정보를 설명하기 위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4문단

①이런 천거제에 대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은 컸다. ②시험 없이 쉽게 관리가 되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특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③우여곡절 끝에 1519년 현량과가 시행되었다. ④천거된 이들을 선별하여 근정전에서 논술로 시험하였고, 12명의 관직 보유자가 포함된 28명의 문과 합격자가 나왔다. ⑤다수가 서울 지역 거주자였다. ⑥장원은 조광조와 친분이 두터운 김식이었고, 사림파의 후원자로 알려진 안당은 세 아들이 모두 합격하였다. ⑦자파 세력 키우기라는 정적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⑧그리하여 훈구파를 견제하는 데 사림을 이용하려 했던 **중종**도 지나친 당파 형성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⑨현량과는 결국 기묘사화의 주요한 계기와 명분으로도 작용하였고, 사화 직후 현량과의 문과 합격은 취소되었다. ⑩이후 현량과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으며 과거제도 자체는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①~②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런 천거제에 대하여, '훈구 세력'의 반발은 컸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훈구 세력'이 왜 나오냐며 당황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훈구 세력'이 '사림 세력'의 반대파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었다면 더욱 훌륭했겠지만요.

어쨌든, 이는 공정성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자 오히려 부당한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리 생각한 내용이니,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네요.

③~⑥ #재진술

어쨌든 '현량과'가 결국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12명의 관직 보유자가 포함된 28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다수가 '서울 지역 거주자'였다고 해요.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경제력과 인맥이 뒷받침된 합격자들이 다수 나왔다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장원은 '사림 세력'의 주도자인 조광조와 친분이 두터운 '김식'이었고, '사림파'의 후원자의 아들은 세 명이나 합격하는 등 찻찻한 결과가 나타났네요. '과거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안한 새로운 제도의 결과가 오히려 더 불공평한 결과를 낳은 것처럼 보이니, 이는 '훈구 세력'으로 하여금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⑦~⑩ #재진술

자연스럽게, 자파 세력 키우기라는 정적들(훈구 세력이겠죠?)의 비난은 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 이러한 제안을 하게 한 당사자인 '중종'마저도 의심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중종'은 원래 '사림 세력'을 통해 '훈구 세력'을 견제할 마음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과하다고 본 것이죠. 결국 이는 '기묘사화'라는 사건의 계기와 명분이 되었고, 결국 합격이 취소된 것은 물론 다시는 시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두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⑦자파 세력 키우기라는 정적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었다.

여기서의 '정적들'이 '훈구 세력'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와 같은 비난이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지문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현량과는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여 통치를 돕는다는 과거제의 목적을 표방하였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량과도 과거제의 일부지.
해설	‘과거제도’의 목적은 유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량과’ 역시 방법이 다를 뿐, ‘과거제도’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그 일부로 도입된 것이었어요. 따라서 당연히 ‘과거제도’의 목적을 그대로 표방하겠죠? ‘현량과’는 ‘과거제도’의 ‘보완’이지 ‘대체’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 ② 어렵게 성사된 현량과의 실시로 초야에 묻힌 지방 선비들이 대거 품계를 받아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혀 그렇지 않았지.
해설	어렵게 성사된 ‘현량과’의 실시 결과, 서울 출신의 인물들 및 ‘사림 세력’과 가까운 인물들이 대거 등용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에서 묻는 것처럼 초야에 묻힌 인재들을 발굴하려는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였죠?

- ③ 생원과 진사는 관직을 받을 자격만 주어지는 것이어서 실제로 벼슬을 하려면 문과의 초시와 복시를 거쳐야 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 문장, 3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원과 진사는 문과 응시 자격이었는데?
해설	‘생원’과 ‘진사’는 ‘문과’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일 뿐,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과’에 최종 합격해야 관직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그 이후의 성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제도’의 문제점이었죠?

- ④ 과거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시험이 아니라 암기 위주의 평가로 되어 있어 덕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작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했지.
해설	‘과거’는 경전의 암기·해석 뿐 아니라 작문과 논술의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했습니다. 덕성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요. ‘과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하게 납득하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 ⑤ 조선에 사는 이라면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인이 합격하여 고위관료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았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노비는 안 되지.
해설	조선에 사는 이 중에서 노비를 제외한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합격하여 고위관료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누구든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던 것은 아니죠. 사실 기억하기 어려운 정보이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빠르게 돌아가서 확인했어야 합니다. 적어도 ‘과거제도의 단점’이 어디에서 서술됐는지 그 위치 정도는 기억했어야 해요.

11.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

- ① 과거를 치른 경험이 있는 관료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더 높은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수!
해설	더 좋은 학벌을 위해 수능을 한 번 더 보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더 높은 등급, 즉 더 높은 품계를 위해 다시 과거를 보기도 했었다고 했죠?

- ② 양반 지배층은 정보와 인맥, 재력을 활용하여 과거를 통한 출세 기회를 높일 수 있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후원과 인맥이 필요했지.
해설	‘과거’에 급제한 뒤에 실직을 받아 관료로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후원과 인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제도’가 양반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능을 갖게 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했죠?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양반 지배층이 자신들의 물질·인적 자산을 통해 출세 기회를 높일 수 있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

- ③ 현량과의 시험은 품계를 받을 충원을 정했다는 점에서 전시를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충원을 정하지는 않았지.
해설	‘현량과’의 결과를 통해 품계를 받을 충원을 정하지는 않았습니. 오히려 과거 시험이 33명의 합격자를 정해놓은 모습을 보였죠. 결과적으로 28명이 뽑히긴 했지만, 이걸 미리 정했다는 말은 그 어디

	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현량과'라는, 화제 그 자체에 대한 정보인데 우리 기억 속에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라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겠죠?
--	--

④ 추천제 관료 선발의 도입은 사림 세력을 일거에 등용하려 한 의도였다고 비판을 받았다.

명시적 근거	4문단 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입니다. 4문단 7번 문장이 없었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이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⑤ 훈구파는 관리 등용이 편파적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실력 위주의 과거제를 옹호하였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훈구 세력'의 주장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특혜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현량과'의 시행을 반대했습니다. '현량과'의 시행을 반대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존 '과거제'를 옹호했다는 말로 이어지겠죠?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중 중 : 선왕의 등용 제도는 항구적이나 별도로 시험하는 법도 있는 것이니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추천에서는 명과 실이 어긋날 염려가 있음을 명심하라.

- '중중'은 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왕의 등용 제도인 '과거제' 외에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천에서는 명과 실이 어긋날 염려가 있음을 명심하라며, 천거제의 부작용을 경계 하라는 말도 건네고 있네요.

조광조: 제주만으로 선발하면 그 행실을 알 수 없는 폐단이 있으므로, 덕행까지 감안하여 뽑는 천거제가 이상적입니다.

- 이에 '사림 세력'의 주도자인 '조광조'는 천거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광필: 제주와 행실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천거에서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왕대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법제를 경솔히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 곤: 현행 과거는 이미 현량과를 시행한 한나라에서의 실패를 거친 끝에 정착한 제도입니다. 잘못된 천거라 하여 천거자를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정광필'과 '남곤'은 모두 기존의 '과거제도'를 고수하는 입장이네요.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 정: 사소한 폐단에 얽매어 나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화는 언제 이를 수 있겠습니까?

조광조: 재주 있는 이도 여전히 뽑힐 수 있으므로 천거제 시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런데 '김정'은 사소한 폐단에 얽매어 나아가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화를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의 방법에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천거제를 시행하자는 것이겠죠? 아마 '김정'은 '훈구 세력'일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같은 편의 옹호에 힘을 얻은 '조광조'는 다시 한번 천거제 시행을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① 중중은 추천제 방식의 도입을 지지하면서도 천거로 말미암을 폐단에 대한 인식과 경계를 드러낸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네.
해설	<보기>를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요.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② 조광조는 정광필, 남곤, 김정의 반대에도 현량과의 도입을 관철하고자 고군분투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김정은 반대한 게 아닌데?
해설	'정광필'·'남곤'과 달리, '김정'은 '현량과'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보기>를 읽으면서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③ 정광필은 관리 선발의 시험제도를 천거제로 대체하려는 조광조의 주장에 대해 어느 것이나 폐단이 있기는 매한가지라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천거제로 대체하자는 게 아닌데?
해설	'정광필'은 제주와 행실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문제, 즉 과거제의 '폐단'이 천거에서도 생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어느 것이나 폐단이 있기는 매한가지라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10번 문제를 풀면서도 확인했듯이, '조광조'와 같은 '사림 세력'의 주장은 관리 선발의 시험제도를 천거제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과거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네요. '정광필'의 주장을 묻는 척하면서 '조광조'의 주장에 대해 묻는 까다로운 선지였습니다. 이런 선지에 당하지 않으려면, '선지에서 묻는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 ④ 남곤은 현량과 시행에는 찬성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량과 시행에 찬성하는 게 아닌데?
해설	‘남곤’은 ‘현량과’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역사적 경험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과거제도’를 개선하지 말자는 거예요.

- ⑤ 김정은 경전의 학습에만 치우치는 폐단에 크게 구애받지 말라고 주문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김정이 말한 폐단은 천거제의 폐단이지.
해설	‘경전의 학습에만 치우치는 폐단’은 기존의 ‘과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폐단입니다. 하지만 ‘김정’이 말한 ‘폐단’은 천거제가 가질 수 있는 폐단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니,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보기> 정리만 미리 잘 해냈다면 어렵지 않게 지워낼 수 있었을 거예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문 내용 총정리

기출문제에도 자주 출제되었던 ‘과거제’에 대한 이야기여서 친숙하게 읽을 수 있었던 지문입니다. 나아가 인물들의 주장도 명료한 편이어서, 중간중간 추론해야 할 내용만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1주차 <과학철학 제재의 지문 읽기>

2011LEET [15~17] 과학 '물리학의 진보' ☆☆

1문단

①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물리학은 크게 변모했다. ②특히 특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③그런데 이 두 예는 과학의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①~③ #카테고리 나누기 #화제 제시

20세기 들어 물리학은 크게 변모했다고 합니다. 특히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의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었는데, 이 두 예는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있어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하네요.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화제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겠죠?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태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런데 이 두 예는 과학의 진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물음의 관점에서 볼 때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화제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지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확실하게 예측한 상태로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해요.

2문단

①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 같은 물리학의 개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었다. ②오랫동안 상대 운동에 관한 유효한 공식으로 승인되었던 속도의 덧셈 법칙도 이에 해당한다. ③이 법칙은 시속 15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시속 150km로 달리는 옆 선로의 기차를 볼 때 그것이 시속 300km로 도망가는 듯 보인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설명해 주지만,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덧셈 법칙은 정확하지 않다.

①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먼저 '특수상대성이론'입니다. 이는 시공간과 같은 물리학의 개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 정도로 큰 혁명을 가져왔다고 해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화제와 연결지어서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②~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이렇게 고쳐 쓰게 된 공식 중 하나는 '속도의 덧셈 법칙'이라고 해요. 단어의 의미를 살려 이해할 수 있듯이, 이 법칙은 관측자의 운동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대상의 운동 '속도'가 '더해져' 보인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설명해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특수상대성이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덧셈 법칙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속도의 덧셈 법칙'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례를 통해 '특수상대성이론'이 과학을 진보시킨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흐름을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1905년 발표된 특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 같은 물리학의 개념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었다.

'과학의 진보'라는 화제와 연관지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문단

①그렇다고 해서 고전물리학이 새 이론에 의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②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③예컨대 앞에서 말한 기차가 만일 초속 15만km로 달린다면 새 이론과 고전물리학의 계산에 뚜렷한 차이가 나겠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두 계산의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 ④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고스란히 포섭하는 반면,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⑤이렇게 볼 때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①~③ #화제의 흐름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이처럼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했지만, 그렇다고 고전물리학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내용을 뒤집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의 진보'라는 화제에 맞춰서 읽을 준비를 해야겠죠?

'특수상대성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전물리학'의 식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정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속을 넘는 속도 정도에서도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의 계산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고 해요. 즉,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산에서는 고전물리학 역시 충분히 훌륭한 설명과 예측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전물리학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을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④~⑤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처럼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고스란히 포섭합니다. '속도의 덧셈 법칙' 같은 식들을 모두 고쳐 쓰더라도, 고전물리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 고전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 중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조건으로 제한되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한 것은 물론이고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초속 15만km처럼 비현실적인 숫자에까지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는 확실하게 물리학의 진보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특수상대성이론'이 '과학의 진보'를 일으키는 방식은 '기존 방법의 영향력을 살릴 수 있게끔 포섭하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화제의 흐름을 살려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이렇게 볼 때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과 예측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물리학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제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였어요.

4문단

①양자역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②1910년대에 물리학자들은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고전 물리학으로는 그런 설명이 불가능했다. ③결국 물리학자들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아 양자역학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문제의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④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는 반면, 원자 안의 전자를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필요하다. ⑤원자 안의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자유로운 전자가 되는데, 마치 그렇게 풀려나면서 양자역학의 영토로부터 고전물리학의 영토로 건너오는 꼴이었다.

① #카테고리 나누기

이번에는 양자역학입니다. 이 지문은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과학의 진보를 이룬 방식의 상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전물리학을 포섭함과 동시에 설명 및 예측이 가능한 영역을 확장시키는 식으로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양자역학'은 어떨까요? 카테고리를 확실하게 나눠주고 읽어봅시다.

②~③ #정의 제시 #화제의 흐름

1910년대 물리학자들은 '원자에 속한 전자들의 동역학적 상태를 설명하려 했지만, 고전물리학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이라는,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은 역학 체계를 구축하여 원자에 속한 전자들에 대해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은 역학 체계'로 말이예요.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그대로 포섭했던 '특수상대성이론'과 달리,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과학의 진보'를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④~⑤ #재진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 안의 전자'를 설명하는 데는 고전물리학이 아닌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원자에 속한 전자'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도입한 이유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한편 원자 안의 전자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으면 자유로운 전자가 되는데, 마치 그렇게 풀려나면서 '양자역학'의 영토로부터 '고전물리학'의 영토로 건너오는 꼴이 된다고 합니다. 비유적 표현이지만,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의 진보'를 이룬 것이라고 할 만하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③결국 물리학자들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아 양자역학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비로소 문제의 현상에 대한 정확하고도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문장이 '과학의 진보'라는 화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5문단

①문제는 양자역학의 식들이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②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③양자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당구공의 충돌 같은 현상이 고전물리학 고유의 영역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④1980년대부터 발달한 혼돈이론의 경우는 두 이론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보여 준다. ⑤혼돈이론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살피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라는 개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⑥이는 혼돈이론이 고전물리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①~③ #화제의 흐름 #재진술 #사레-원리 연결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히려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의 경우 고전물리학을 포섭하면서 설명 가능한 영역을 확장했는데, 양자역학은 본인만의 영역을 확실히 했을 뿐 당구공의 충돌 같은 고전물리학의 영역까지 포섭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양자역학의 등장이 물리학의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과학의 진보'라는 화제에 맞춰서, 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기대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④~⑥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이때, 1980년대부터 발달한 '혼돈이론'을 통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 간 관계의 또 다른 면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혼돈이론'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살피는 이론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혼돈'스러운 초기 상태의 변화를 살피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러한 상태가 명확히 규정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혼돈이론 역시 고전물리학의 토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돈이론이라는 정보가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의 영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해야겠죠?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그 정보의 역할을 생각하며 화제의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문제는 양자역학의 식들이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납득하고,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기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지문의 흐름이 확실하게 잡혀야 해요!

6문단

①그러나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절묘하게 서로 연결된다. ②원자에서 막 풀려나오는 순간의 전자에 대응되는 극한 조건을 가정하면 신통하게도 양자역학의 식은 고전물리학이 내놓는 식과 일치하는 형태를 띤다. ③이는 각기 다른 현상 영역을 맡아 설명하고 있는 두 이론이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매끄러운 이음매를 만들며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④이런 연결을 통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들로 자리를 잡는다.

①~② #화제의 흐름 #재진술

이처럼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절묘하게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원자에서 막 풀려나오는 순간의 전자에 대응되는 극한 조건에서는 양자역학의 식과 고전물리학의 식이 일치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다뤘듯이, 원자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전자의 운동은 고전물리학으로 설명되고 원자 안의 전자는 양자역학으로 설명되는데 그 경계에서 두 이론이 딱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역학’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과학의 진보’를 이뤄낸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③~④ #재진술

이처럼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각기 다른 현상 영역을 맡아 설명하고 있지만, 극한 조건 아래 두 영역의 경계에서 만나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들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처럼 상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역학은 물리학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을 듯하네요. 핵심은 ‘특수상대성이론’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면서 상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런 연결을 통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은 물리학을 구성하는 상보적인 부분들로 자리를 잡는다.

이 문장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것이 ‘양자역학 역시 과학의 진보를 가져왔다.’로 읽혀야 합니다. 화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7문단

①만일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②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리학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해진 사실은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③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덕분에 우리는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대한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가지고 있다.

①~③ #재진술 #화제의 흐름

만일 양자역학으로 인해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어 사라졌거나 고전물리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학과 양자역학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했다면, 20세기 물리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학설이 폐기되거나(대체하거나) 기존의 학설과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리학의 진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면의 내용까지 추론하면서 고난도 선지에 대비해야 해요.

어쨌든, 결론은 간단합니다.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된다는 것이예요. 고전물리학이 설명하는 영역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고전물리학과 매끄럽게 연결되어 물리학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죠. 결국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세계’, ‘다채로우면서도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은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우리의 세계와 그에 대한 물리학의 범위를 기존에 알던 것과 연결지으면서도 넓혀주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②그러나 우리가 가진 물리학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해진 사실은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끄덕끄덕하면 되는 문장이죠? 결국 이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글을 읽었던 것입니다.

15. 윗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㉔

① 혼돈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양자역학이 적용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양자역학은 혼돈이론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했지.
해설	맥락상 ‘혼돈 현상’은 ‘혼돈이론’에서 살피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두 초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이를 ‘혼돈’스러운 상태로 받아들였는데, 선지에서 ‘혼돈 현상’으로 재진술하는 모습이네요. 이런 선지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받아들이는 습관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양자역학에서는 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고 했었죠? ‘혼돈이론’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확실히 이해했던 내용이니,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② 원자에 속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는 고전물리학이 적용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양자역학이지.
해설	물리학자들은 고전물리학을 통해 원자에 속한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하자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삼아 ‘양자역학’의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양자역학'이라는 핵심 개념과 관련된 내용이니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합니다.
--	---

- ③ 고전물리학에 등장하는 모든 개념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도 유지된다.
 ④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속도의 덧셈 법칙은 고전물리학에서와 동일한 식으로 표현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특수상대성이론에서 고쳐 썼지.
해설	'특수상대성이론'은 '고전물리학'에 등장하는 여러 공식들을 고쳐 쓰게 만들면서도, '고전물리학'의 설명력을 그대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과학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속도의 덧셈 법칙'이었죠?

- ⑤ 음속과 비슷한 속력의 운동은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 중 어느 것으로 설명하든 거의 차이가 없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음속을 넘어도 두 계산의 결과가 근사하다고 했지.
해설	초속 15만km 정도의 비현실적인 속력의 운동의 경우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의 계산 결과가 크게 차이하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도 두 이론의 계산 결과는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보여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음속과 비슷한 속력(참고로 음속은 시속 1,200km 정도입니다.)의 운동은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 어떤 것으로 설명하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물리학에서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던 비현실적인 속력에 대한 계산까지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과학의 진보'임을 납득했다면 자연스럽게 '음속과 비슷한 속력'이라는, '속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두 이론의 계산이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볍게 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16. ㉠의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윗글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④

㉠ 양자역학의 등장 역시 물리학의 진보로 귀결되었다

- 핵심은 '양자역학'도 '서로 연결되면서 상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과학의 진보'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 ① 과학의 진보를 평가할 때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옛 이론도 고려해야 한다.

명시적 근거	7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고전물리학도 고려해야지.
해설	고전물리학은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등의 한계를 드러낸 옛 이론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진보를 평가할 때 계속해서 고려되는 이론이기도 하죠. 옛 이론이 아예 폐기되어 사라지거나 옛 이론과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리학의 진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확실하게 추론했었죠?

- ② 물리학의 진보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명시적 근거	6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이 설명할 수 없었던 '원자 속 전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양자역학의 등장은 '물리학의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입니다.

- ③ 두 이론의 영역이 만나는 경계에서 두 이론의 식이 일치한다면 두 이론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양자역학과 고전물리학은 원자에서 막 풀려나오는 순간의 전자에 대응되는 극한 조건에서神通하게도 같은 식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이론이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양자역학의 등장은 '과학의 진보'로 귀결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과학의 진보'의 조건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두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면 두 이론은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를 토대로 하는데?
해설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과 양립 불가능한 전제들을 토대로 하는 역학 체계로 정의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과 특정 지점에서 매끄럽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등장

	을 '과학의 진보'라 부를 수 있는 이유였어요. '특수 상대성이론'과의 차이점으로 확실하게 인식했던 내용이었죠?
--	--

⑤ 옛 이론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새 이론이 해결했다고 해도 그것으로 과학의 진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1번~2번 문장, 5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런 문제가 있었지.
해설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양자역학은 고전물리학이 효과적으로 설명해 온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자역학이 과학의 진보를 불러 일으킨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것이 지문의 흐름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이 고전물리학으로 풀 수 없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과학의 진보'가 보장되지 않지만, 고전물리학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점과 두 이론이 특정 지점에서 딱 만났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자역학의 등장이 '과학의 진보'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워낼 수 있는 선지예요.

17. 윗글의 관점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갈릴레오 낙하 법칙 $s = \frac{1}{2}gt^2$ 은 자유롭게 낙하하는 물체의 낙하 거리(s)와 낙하 시간(t)의 관계를 나타낸다. 뉴턴 역학의 중력 법칙과 운동 방정식을 쓰면 갈릴레오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뉴턴 역학의 관점을 엄격히 적용하면 갈릴레오의 법칙은 정확한 진술이 아니다. 물체가 낙하함에 따라 물체와 지구 중심 사이의 거리가 변하고 그에 따라 둘 사이의 중력도 변하기 때문에, 낙하 법칙에서 상수로 가정된 중력 가속도 g 는 사실 상수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낙하 운동은 지구의 반지름에 비해 아주 작은 구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일정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 '갈릴레오 낙하 법칙'은 '뉴턴 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턴 역학'의 관점을 엄격히 적용하면 '갈릴레오 낙하 법칙'은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갈릴레오 낙하 법칙'에서 상수로 가정된 중력 가속도 g 는 사실 상수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낙하 운동 상황에서는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중력 가속도 g 를 상수로 놓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이러한 <보기>의 내용을 읽자마자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을 이용한 계산 결과를 엄격히 적용하면 초속 15만km와 같은 상황에서 고전물리학의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지만, 음속을 넘는 시속 1,500km 정도에서까지도 고전물리학의 계산 결과는 특수상대성이론의 계산 결과에 근사하기까지요. 이는 <보기>의 '갈릴레오 낙하 법칙'과 '뉴턴 역학' 사이의 관계와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①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물리학의 식들을 포섭하는 것처럼 뉴턴 역학은 충분히 훌륭한 근사를 통해 갈릴레오의 법칙을 포함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미리 생각한 내용이네.
해설	미리 생각한 내용 그 자체죠? 가볍게 답으로 골라 주셔야 합니다.

②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영토가 매끄럽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것처럼 갈릴레오의 법칙이 유효한 범위는 뉴턴 역학의 영토와 잇닿아 있다.

명시적 근거	<보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양자역학 이야기가 아니지.
해설	<보기>는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의 관계와 대응되는 것이지,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관계와 대응되는 것이 아닙니다. '뉴턴 역학'은 '갈릴레오 낙하 법칙'이 설명하는 영역을 모두 포섭하여 설명할 수 있어요.

③ 갈릴레오의 법칙은 뉴턴 역학의 관점에서 상수가 아닌 g 를 상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뉴턴 역학과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형성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보기>, 7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특수상대성이론 덕에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해설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 대한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은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 그리고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관계를 모두 내포한 표현이었어요. '뉴턴 역학'은 '갈릴레오 낙하 법칙'을 완전히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두 이론이 '하나로 연결된 물리학'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혼돈이론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릴레오의 법칙은 뉴턴 이전의 역학과 뉴턴 역학을 연결하는 이음매 역할을 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4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음매 역할은 양자역학 이야기잖아.

해설	<p>‘혼돈이론’은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었어요. 따라서 이 이론이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을 연결한다는 것부터 적절하지 않죠? 오히려 둘 사이의 단절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p> <p>또한, ‘갈릴레오 낙하 법칙’은 ‘뉴턴 역학’에 포섭되어 있는 것이지 ‘뉴턴 이전의 역학’과 ‘뉴턴 역학’을 연결하는 이음매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음매 역할은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에 <보기>에 적용될 수가 없겠죠?</p>
----	---

- ⑤ 갈릴레오의 법칙과 뉴턴 역학은 서로 상충하는 이론적 전제 위에 구축되었지만, 전자로 후자를 근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론의 상보적 부분들이 된다.

명시적 근거	<보기>, 6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상보적 부분은 양자역학 이야기지.
해설	<p>이 선지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상보적 부분들’은 고전물리학과 양자역학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보기>는 고전물리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의 관계에 대응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선지의 내용은 <보기>의 사례에 적절하게 적용한 설명이 아니네요.</p> <p>또한 이 선지에서는 ‘갈릴레오 낙하 법칙’으로 ‘뉴턴 역학’을 근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뉴턴 역학’으로 ‘갈릴레오 낙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죠. 이 부분에 의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진술임을 알 수 있습니다.</p>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⑤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과학의 진보’라는 화제에 맞춰서 ‘특수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를 비교하는 형태의, LEET언어이해 지문 중에서는 다소 평이한 지문이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해야 할 생각’을 정확히 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1주차 <과학 제재의 지문 읽기>

2013LEET [25~27] 과학 '속세포덩어리' ☆☆☆

1문단

①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형성된 단일 세포인 **접합체**가 세포 분열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②포유류의 경우, 접합체의 세포 분열로 형성되는 초기 배반포 단계에서 나중에 태반의 일부가 되는 **영양외배엽 세포**와 그에 둘러싸인 **속세포덩어리**가 형성되는데, 이 속세포덩어리는 나중에 태아를 이루는 모든 세포로 분화되는 **다능성(多能性)**을 지닌다. ③그렇다면 속세포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형성된 단일 세포인 '접합체'가 세포 분열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정자와 난자가 '접합'하여 만들어진 '접합체'가 세포 분열의 과정을 거쳐 여러 세포를 만든다는 것, 첫 문단의 첫 문장에서부터 제시한 핵심 전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뒷내용을 이해해봅시다.

②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카테고리 나누기

포유류의 경우, 단일 세포인 '접합체'의 세포 분열로 형성되는 단계, 즉 '초기 배반포 단계'에서 태반의 일부가 되는 '영양외배엽 세포'와 그에 둘러싸인 '속세포덩어리'가 형성된다고 해요. 단어의 의미를 살려, '영양/외/배엽 세포', '속/세포/덩어리'와 같은 식으로 이해하면 '영양외배엽 세포'가 '속세포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겠죠. '바깥(외)'에 있는 세포가 '속'에 있는 '세포덩어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속세포덩어리'는 나중에 태아를 이루는 모든 세포로 분화되는 '다능성'을 가진다고 해요. 역시 단어의 의미를 살려 '속세포덩어리'가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세포로 분화된다고 하니, 그 능력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 '영양외배엽 세포'와 '속세포덩어리'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 중 후자가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③ #화제 제시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진 속세포덩어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음의 형태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으니 확실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속세포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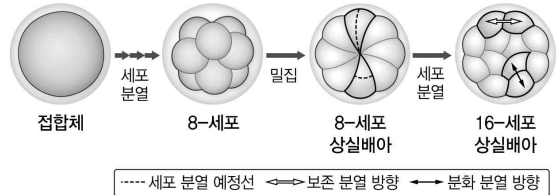
하이라이트 문장

①우리 몸의 수많은 세포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형성된 단일 세포인 접합체가 세포 분열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물음을 통해 화제를 제시하는 3번 문장에서 중요하지만, 이렇게 첫 문단의 첫 문장부터 지문 전체의 대전제를 만들어주는 문장에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초반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학·기술 지문일수록 더더욱이요. 우리는 이제 '접합체가 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를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정보를 처리할 거예요.

2문단

①접합체는 3회의 세포 분열을 통해 8개의 구형(球形) 세포로 구성된 8-세포가 된 후, 형태를 변화시키는 **밀집 과정**을 통해 8-세포 상실배아가 된다. ②다음으로, 8-세포 상실배아는 세포의 보존 분열과 분화 분열로 16-세포 상실배아가 되는데, **보존 분열**은 분열 후 두 세포의 성질이 같은 경우이며, **분화 분열**은 분열 후 두 세포의 성질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③8-세포 상실배아의 일부 세포는 보존 분열로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되고, 나머지 세포는 분화 분열로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에 1개, 내부에 1개로 갈라져서 분포함으로써, 16-세포 상실배아는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로 구분되는 모습을 처음으로 띠게 된다. ④한편 이 두 갈래의 세포 분열은 16-세포 상실배아에서도 일어나서 32-세포 상실배아가 형성된다. ⑤32-세포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들은 이후 초기 배반포의 **영양외배엽 세포**들로 분화되고 내부 세포들은 **속세포덩어리 세포**들로 분화된다.



① #재진술 #과정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접합체는 먼저 3회의 '세포 분열'을 통해 8개의 구형 세포로 구성된 '8-세포'가 된다고 합니다. '접합체의 세포 분열'이라는 포인트가 재진술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두 개로 나누어지는 '분열'이 3회 시행되면 8개의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당연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밀집' 과정을 통해 8-세포 상실배아가 된다고 해요. 아래 제시된 그림을 보면, 3회의 세포 분열과 밀집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밀집'의 결과 세포의 형태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해요.

②~③ #재진술 #과정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비교/대조

이렇게 밀집을 통해 형태를 변화시킨 8-세포 상실배아는 '보존 분열'과 '분화 분열'을 거쳐 16-세포 상실배아가 된다고 합니다. '보존/분열'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분열 후에 두 세포의 성질이 '보존'되어 같은 분열이고, '분화/분열'은 분열 후에 두 세포의 성질이 다른 것으로 '분화'되는 분열로 이해할 수 있겠죠? 8-세포 상실배아의 일부 세포는 '보존 분열'을 하여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을 형성하는 세포들이 되고, 나머지 세포는 '분화 분열'을 하여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에 1개, '내부'에 1개로 갈라져서 분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층을 형성하느냐 내부에 분포하느냐를 앞에서 말한 세포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 '분화 분열'로 인해 내부 세포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로 구분되는 모습을 처음으로 띠게 되는 것이 '16-세포 상실배아'입니다. 역시 아래 제시된 그림을 보면, '보존 분열'을 하는 세포들은 표층만을 형성하고, '분화 분열'을 하는 세포들은 표층과 내부에 1개씩 자리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8-세포 상실배아까지는 내부 세포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세포 분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④~⑤ #재진술 #과정 제시 #화제의 흐름

이러한 두 갈래의 세포 분열은 16-세포 상실배아에서도 일어나서 32-세포 상실배아까지 형성된다고 합니다. 두 갈래의 세포 분열이 모두 일어나니, 32-세포 상실배아에도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가 있겠죠? '32-세포 상실배아'는 그림이 나와 있지 않으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이 중에서 표층 세포는 '영양외배엽 세포'들로 분화되고, 내부 세포들은 '속세포덩어리 세포'들로 분화됩니다. 속세포덩어리는 '분화 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32-세포 상실배아의 내부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다른 어떤 정보보다도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겠네요.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32-세포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들은 이후 초기 배반포의 영양외배엽 세포들로 분화되고 내부 세포들은 속세포덩어리 세포들로 분화된다.

'속세포덩어리'라는 말을 보자마자 화제를 떠올려야 합니다. 나아가 '분화 분열'로 인해 만들어진 32-세포 상실배아의 내부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속세포덩어리'의 생성 원리를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로 넘어가셔야 해요.

3문단

①여기서 문제는 16-세포 상실배아와 32-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포로 분화되는가이다. ②이에 대해 두 개의 가설이 제시되었다. ③먼저 '내부-외부 가설'은 하나의 세포가 주변 세포와의 접촉 정도와 외부 환경에 노출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화된다고 보았다. ④곧 상실배아의 내부 세포는 표층 세포보다 주변 세포와의 접촉 정도가 더 크고 바깥 환경과 접촉하지 못하므로 내부 세포와 표층 세포는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이다.

①~② #화제의 흐름

여기서 문제는 16-세포 상실배아와 32-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포로 분화되는가입니다. 16-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은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32-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은 '영양외배엽 세포'와 '속세포덩어리 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두 개의 가설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화제가 조금 더 구체화된 모습이죠? 여기에서 '속세포덩어리'는 도대체 왜 만들어진 것인지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④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먼저 '내부-외부 가설'입니다. 이는 주변 세포와의 접촉 정도, 외부 환경에 노출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분화된다고 보는 가설입니다. 내부 세포는 표층 세포보다 주변 세포와의 접촉 정도가 더 크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영양외배엽 세포가 아닌 '속세포덩어리'로 분화된다는 것이죠. '내부'와 '외부'에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분화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표층'의 환경에 노출되면 영양외배엽 세포가 되는 것이고, '내부'의 환경에 노출되면 '속세포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여기서 문제는 16-세포 상실배아와 32-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포로 분화되는가이다.

화제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 문장 그 어디에도 '속세포덩어리'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 핵심은 또 '속세포덩어리'의 생성 과정'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4문단

①그러나 8-세포 상실배아 상태에서 특정 물질들의 분포에 따라 한 세포가 성질이 다른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양극성 가설'이 새로 제시되었다. ②8-세포 단계에서 세포 내에 고르게 분포했던 어떤 물질들이 밀집 과정에서 바깥이나 안쪽 중 한쪽으로 쏠려 분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8-세포 상실배아의 각 세포는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③이 물질들을 양극성 결정 물질이라고 부르며, 이 물질의 분포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의 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이 '양극성 가설'이다. ④이 가설에 따르면 8-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분화 분열되면서 형성된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의 분포를 유지하지만, 분열로 만들어진 내부 세포에는 분열 이전에 바깥쪽에 쏠려 분포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이 없다. ⑤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의 이런 차이 때문에 분화된 세포의 유형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①~③ #정의 제시 #재진술

그러나 8-세포 상실배아 상태에서 특정 물질들의 분포에 따라 한 세포가 성질이 다른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양극성 가설'이 새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밀집 과정을 거치기 전인 8-세포 단계에서 그 물질은 세포 내에 고르게 분포하는데, 밀집 과정을 거치면서 바깥이나 안쪽 중 한쪽으로 쏠려 분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8-세포 상실배아의 각 세포는 두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양극성 결정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질의 분포에 따라 서로 다른 성질의 세포로 분화된다는 것이 '양극성 가설'이에요.

8-세포 상실배아는 아직 내부 세포와 표층 세포로 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2번 문장에서 말하는 '두 부분'은 '양극성 결정 물질이 바깥쪽에 쏠린 부분 / 안쪽에 쏠린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때의 '바깥/안쪽'은 '표층/내부'와는 다르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즉, '표층/내부'는 16-세포 상실배아 전체 중에서 '표층'에 있는 것과 '내부'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바깥/안쪽'은 8-세포 상실배아 단계의 한 세포의 표면과 그 내부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전자는 '상실배아' 전체를 기준으로 '표층/내부'를 나눈 것이고, 후자는 '세포' 하나를 기준으로 '바깥/안쪽'을 나눈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어야 진짜 실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8-세포 상실배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와 동시에 8-세포 상실배아는 '표층/내부'로 나뉘기 전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런 구분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④~⑤ #정보의 역할 #재진술 #화제의 흐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양극성 가설'은 8-세포 상실배아의 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예요. '양극성 가설'은 16-세포 상실배아와 32-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분화되는 원인에 대한 가설이므로, 단순히 8-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바깥/안쪽'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는 것은 '양극성 가설'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16-세포 상실배아와 32-세포 상실배아의 세포 분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해요.

'양극성 가설'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8-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분화 분열'되면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표층 세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의 분포를 유지하지만 내부 세포에는 분열 이전에 바깥쪽에 쏠려 분포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이 없다고 해요. 내부 세포는 '바깥쪽에 쏠려 분포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32-세포 상실배아 단계에서 '속세포'덩어리 세포가 된다는 것으로 납득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결국 '속세포'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 가설에 따르면 8-세포 상실배아의 세포가 분화 분열되면서 형성된 16-세포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는 원래 가지고 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의 분포를 유지하지만, 분열로 만들어진 내부 세포에는 분열 이전에 바깥쪽에 쏠려 분포했던 양극성 결정 물질이 없다.

역시 '속세포'덩어리라는 말이 없지만, '내부 세포'라는 말을 보고서 '속세포'덩어리의 생성 원리라는 화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처리해야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5문단

①과학자들은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의 분화와 관련하여 다능성-유도 물질 OCT4와 영양외배엽 세포 형성 물질 CDX2를 주목하였다. ②8-세포 상실배아의 모든 세포에서 OCT4는 고르게 분포하지만, CDX2는 그렇지 않다. ③이는 양극성 결정 물질 중 세포의 바깥 부분에만 있는 물질이 CDX2를 세포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하기 때문이다. ④이후 16-세포 상실배아가 되면, 표층 세포에서는 OCT4가 점차 없어지는 반면, 내부 세포에서는 잔류 CDX2가 점차 없어지는데, 이는 표층 세포에서는 CDX2가 OCT4의 발현을 억제하고, 내부 세포에서는 OCT4가 CDX2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⑤한편 CDX2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히포' 신호 전달 기전 또한 관련 현상으로 연구되었다. ⑥이에 따르면, 16-세포 상실배아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이 기전은 주변 세포와의 접촉이 커지면 활성화되어 CDX2의 양이 감소한다. ⑦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CDX2와 OCT4의 상호 작용이 분화 분열로 만들어진 두 세포가 달라지는 원인임을 말해 준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과학자들은 상실배아의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의 분화와 관련하여 '다능성-유도 물질' OCT4와 '영양외배엽 세포 형성 물질' CDX2를 주목하였습니다. '다능성'과 '영양외배엽'이라는 말을 바탕으로 하면 OCT4가 '속세포'덩어리 세포'의 형성에, CDX2가 '영양외배엽 세포'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능성'과 '영양외배엽'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음을 인지했다면 끌고 와서 이렇게 연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의 분화'라는 말을 보고서 결국 또 다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속세포'덩어리'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해요. 모든 정보는 화제 중심으로 모입니다.

②~④ #고정값 #재진술

일단 8-세포 상실배아 단계에서, '모든' 세포에 OCT4가 고르게 분포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고정값이니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를 기준으로 CDX2는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4문단에 제시되었던 '양극성 결정 물질' 중 세포의 바깥 부분에만 있는 물질, 즉 16-세포 상실배아의 내부 세포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의 영향으로 인해 8-세포 상실배아의 세포에서 OCT4와 달리 CDX2는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세포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이 물질이 한 번 더 등장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최대한 역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이후 16-세포 상실배아가 되면, 표층 세포에는 CDX2가 남고 내부 세포에는 OCT4가 남습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 표층 세포는 '영양외배엽 세포 형성 물질'의 도움으로 '영양외배엽 세포'들로 분화되고, 내부 세포는 '다능성-유도 물질'의 도움으로 '속세포'덩어리 세포'들로 분화되는 것이죠. 결론은 같은데,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탐구하는 모습입니다.

⑤~⑦ #수식된 정의 제시 #비교/대조 #카테고리 나누기 #고정값 #재진술

한편 CDX2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히포' 신호 전달 기전 또한 관련 현상으로 연구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OCT4처럼 CDX2 자체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CDX2를 발현시키는 어떠한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라는 것이에요. 차이점을 디테일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이 기전은 16-세포 상실배아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일종의 '고정값'인데, 주변 세포와의 접촉이 커지면 활성화되어 CDX2의 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변 세포와의 접촉이 커진다는 것은 곧 '내부 세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내부-외부 가설'에 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된 정보죠? 즉,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은 내부 세포에서 활성화되어 CDX2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부 세포에서는 OCT4가 CDX2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도 하고,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 작동하여 CDX2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기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내부 세포에는 '다능성-유도 물질'인 OCT4만 남아 '속세포'덩어리 세포'로 분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결국 마지막까지 처음의 물음에 대한 답을 내려 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제 중심으로 정보를 모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25. 속세포덩어리의 형성과 관련하여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④

① 속세포덩어리로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화제네.
해설	'내부 세포'들이 '속세포덩어리 세포'들로 분화한다는 것,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화제 그 자체이니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② 속세포덩어리로 분화될 세포의 양극성 존재 여부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부 세포는 양극성 물질 없었지.
해설	'속세포덩어리'로 분화될 세포는 내부 세포인데, 이러한 내부 세포는 '양극성 결정 물질' 중 바깥쪽에 쏠려 분포하는 '양극성 결정 물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극성 결정 물질'이 없다면 해당 세포에 '양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러한 '양극성 결정 물질'은 화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임을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속세포덩어리로 분화될 세포가 최초로 형성되는 시기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16-세포 상실배아!
해설	'속세포덩어리'로 분화될 세포는 '내부 세포'이고, 이러한 내부 세포가 최초로 형성되는 시기는 '분화 분열'이 처음 일어난 16-세포 상실배아 단계였습니다. 화제 그 자체와 직결되는 정보이기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④ 속세포덩어리가 될 세포의 수를 결정하는 물질의 종류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모르겠는데?
해설	'속세포덩어리'가 될 세포는 내부 세포인데, 이 내부 세포의 '수'를 결정하는 물질의 종류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내부 세포가 '속세포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지, 내부 세포 그 자체가 아니에요.

⑤ 속세포덩어리가 될 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세포 분열의 방법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화 분열!

해설	'속세포덩어리'가 될 세포는 내부 세포입니다. 내부 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세포 분열의 방법은 세포를 서로 다른 성질(표층/내부)로 분화시키는 '분화 분열'이었어요. 역시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이기에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겠죠?
----	---

26. 16-세포 상실배아가 동안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⑤

- 최대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해봅시다. 16-세포 상실배아기는 8-세포 상실배아기에서 '보존 분열'과 '분화 분열'이 일어나 처음으로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로 나뉘는 단계였어요. 이 두 갈래의 세포 분열은 한 번 더 일어나 32-세포 상실배아기로 이어졌죠?

나아가, 16-세포 상실배아가 되면 '내부 세포'에 '바깥쪽에 쏠려 분포하는 양극성 결정 물질'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내부 세포'를 '속세포덩어리'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었어요. 또한, 16-세포 상실배아가 되면 표층 세포에는 CDX2가 남고 내부 세포에는 OCT4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CDX2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히포' 신호 전달 기전 또한 16-세포 상실배아기의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16-세포 상실배아기'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떠올려놓고 문제를 풀러 가야 해요. 이렇게 선지 판단의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① 내부 세포에서 CDX2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 있는데?
해설	내부 세포에서는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CDX2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여 CDX2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미리 생각했던 내용이죠?

② 보존 분열에 의해 형성된 세포에서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이 활성화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5번~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은 내부 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건데?
해설	지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히포' 신호 전달 기전은 주변 세포와의 접촉이 커지면, 즉 '내부 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것이었음을 추론했었죠? 그런데 선지에서 묻는 '보존 분열'에 의해 형성된 세포는 표층 세포이므로 틀린 선지입니다. 지문에서 해야 할 생각을 미리 하며 추론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③ 표층 세포의 바깥쪽 부분에서 CDX2의 발현을 억제하는 OCT4의 영향력이 증가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표층 세포에는 CDX2가 특세한다고 했지.
해설	16-세포 상실배아기에는 표층 세포에서 CDX2가 OCT4의 발현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CDX2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미리 했던 생각이기도 하죠? 이를 기반으로 바로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겠네요. 한편, ‘양극성 결정 물질’ 중 세포의 바깥 부분에만 있는 물질은 CDX2를 세포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표층 세포의 ‘바깥쪽’ 부분에서 물질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건 맞는 말이죠? 물론 그 물질이 선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OCT4가 아니라, CDX2이기에 틀린 선지지만요.

④ 분화 분열에 의해 형성된 내부 세포에서 CDX2 양에 대한 OCT4 양의 비율이 감소한다.

명시적 근거	5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부 세포에는 OCT4가 더 많지.
해설	3번 선지와 반대로, 내부 세포에서는 OCT4가 CDX2의 발현을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OCT4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CDX2 양에 대한 OCT4 양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야 적절하겠죠.

⑤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 간에 CDX2의 분포를 결정하는 양극성 결정 물질의 양에 차이가 생긴다.

명시적 근거	4문단 4번 문장,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CDX2의 분포를 결정하는 양극성 결정 물질이 있었는데... 아 이게 내부 세포엔 없는 거구나.
해설	일단 선지에서 묻는 ‘CDX2의 분포를 결정하는 양극성 결정 물질’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는 세포 바깥 부분에만 있는 물질로, CDX2를 세포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때 ‘바깥쪽’이라는 말을 보고서, 나아가 선지에서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 물질이 내부 세포에는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으로 표층 세포와 내부 세포로 나뉘어진 16-세포 상실배아의 내부 세포에는 CDX2의 분포를 결정하는 ‘양극성 결정 물질’이 없는 것이기에,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선지에서 묻는 것을 기반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조합해나가는 생각의 흐름이 중요했던 선지였어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27. <보기>는 여러 단계의 상실배아에 있는 세포에 조작을 가하여 배양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실험 결과가 해당 가설을 지지할 때, ㉠, ㉡, ㉢으로 알맞은 것은? ㉡

- <보기>의 실험 결과는 해당 가설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생각한 채로 <보기>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야 해요.

대상 세포	가해진 조작	배양된 세포 유형	가설
32-세포 상실배아의 내부에 있는 세포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표층으로 옮겨 배양	㉠	내부-외부 가설
16-세포 상실배아의 내부에 있는 세포	채취하여 단독으로 배양	㉡	내부-외부 가설
8-세포 상실배아에 있는 세포	채취하여 바깥쪽에 올려 있는 양극성 결정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주입한 후 단독으로 배양	㉢	양극성 가설

- 먼저 32-세포 상실배아의 ‘내부’에 있는 세포를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표층’으로 옮겨 배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 결과가 ‘내부-외부 가설’을 지지한다고 해요. ‘내부-외부 가설’은 내부와 표층에서의 환경에 따라 배양되는 세포가 달라진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원래 내부에 있던 세포를 표층으로 옮기면 ‘표층 세포’의 성질을 바탕으로 배양될 것이고, 결국 ㉠에 들어갈 말은 영양외배엽임을 알 수 있네요.

- 다음은 16-세포 상실배아의 ‘내부’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여 단독으로 배양하는 상황입니다. 이 실험 결과 역시 ‘내부-외부 가설’을 지지해요. 16-세포 상실배아의 내부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여 단독으로 배양하면 주변 세포와의 접촉이 끊기고 외부 환경에도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표층 세포’와 같은 성질을 바탕으로 배양될 것임을 알 수 있죠. 결국 ㉡에 들어갈 말도 영양외배엽이겠네요.

- 마지막은 8-세포 상실배아에 있는 세포를 채취하여 바깥쪽에 올려 있는 ‘양극성 결정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물질을 주입한 후 단독으로 배양하는 상황입니다. 이 실험 결과는 ‘양극성 가설’을 지지한다고 해요. 8-세포 상실배아 상태에서 바깥쪽에 올려 있는 ‘양극성 결정 물질’의 기능을 억제하면 그 물질이 없는 내부 세포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상태로 단독으로 배양되면 ‘내부 세포’의 성질 그대로 배양될 거죠. 결국 ㉢에 들어갈 말은 속세포덩어리임을 알 수 있네요.

지문을 잘 이해하고, 앞 문제를 정확한 과정으로 풀어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초반 정보 견디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견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 ⑤ 비교/대조 : 비교되는 대상이 나오면,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화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초반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뒷내용에 붙이는 방식으로 읽어나가는 전형적인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특히 후반 '내부-외부 가설'과 '양극성 가설' 부분에서 '속세포덩어리'라는 화제를 생각하며 이를 중심으로 읽어나갔는지를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